

전국
서울

[단독] 13대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강지민. "나는 비리연루자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돈은 한마음대회 준비목적으로 지출해서 문제없다.' 주장!

서상원기자 |



승인 2019.01.31 11:45:17



▲ 녹색어머니연합회

(서울=국제뉴스) 서상원 기자 = 2019년 1월 5일 '(사) 13대 녹색어머니중앙회 비리가 드러나다.' 국제뉴스 기사를 본 13대 비리연루자인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인 강지민이 본 기자에게 이메일 한통을 보내왔다.

메일의 내용은,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의 지출내역 영수증이 다 있다며 문제될게 없으니 기사를 정정보도 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본 기자는 강지민의 주장에 '지출내역이 아닌, 개인통장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반문을 제기하였고, 왜 개인통장으로 받았는지를 되물었다.'

또한, 강지민은 <강지민>'13대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정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통해 13대 강윤례회장 및 이사들에게 명확한 사실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엇 때문에 비리를 운운하며 순수한 봉사단체의 기본을 말하면서 진실이 왜곡된 명분 없는 기사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왔다.

이에 본 기자는 13대 중앙회장을 역임하고, 현 전남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인 강윤례와 보험사를 토대로 대가성으로 200만원을 17개 시도 회장들에게 주고받았다는 진술내용을 확인한 뒤였고, 이후 강지민을 찾아가 취재를 요청했지만, 강지민은 '자신은 강지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였던 것에 대하여 되물었다.

강지민은 또 자신이 13대의 비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강지민>'저는 13대 한마음관련 후원에 있어 명확한 목적에 맞는 후원과 지출 감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강윤례회장에게 중앙회 이사로서 명확성 요청을 하였고, 경찰청까지 찾아가 명확한 감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던 사람입니다.'

본 기자는 강지민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 ①청렴한 사람이 왜 개인통장으로 200만원을 받았는지?
- ②자신들이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경찰청이 감사를 잘 진행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시한 것인지?
- ③경찰청은 17개 시.도 지역 회장들의 개인통장을 사무감사를 통해 확인 하고, 문제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것인지?
- ④강지민 자신은 돈을 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 ⑤김순나 행정관의 말대로 국회의원 장제원 보좌관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인지?
- ⑥강윤례는 어떻게 16개 시.도 회장들의 개인통장들을 알아서 3,400만원의 돈을 활동비 목적으로 전하였던 것인지?

내용을 반문하였다.

이번, 강지민의 메일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통장내역이 아닌 영수증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면서 기자에게 '200만원 지출내역'이라는 내용만 전해왔을 뿐,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떳떳함을 내세우는 태도를 보면서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찰청은 강지민의 주장대로 '경찰청까지 찾아가 감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통해 17개 시.도 지역회장에 대한 개인 통장 내역을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위 내용들에 대하여 김순나 행정관의 말대로 '장제원국회의원 보좌관의 문의가 있어 답변을 주었다면' 장제원국회의원 보좌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김순나 행정관으로부터 들었으며, 그 대답을 들은 뒤에 어떤 조취를 취했는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누구를 통해 민원을 받아 경찰청에 문의를 하게 되었는지도 스스로 해명하여야 한다.

본 기자는 '녹색어머니 비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과연 '녹색어머니'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녹색어머니회중앙회 및 각 지역, 경찰서 단위로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인 강지민이 본 기자에게 보내온 이메일 질의 내용 및 답변서 ***

발신: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강지민 회장

수신: 국제뉴스 서상원 기자

1월5일 "(사)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비리가 들어나다"

기사에 대한 "사실무근에 관한 건"

1. 보도에 의하면 각 연합 회장들이 200만원을 유용했다고 하는데 부산 연합회는 200만원을 한마음 대회 준비 목적으로 임원진 회의를 거쳐 한마음대회 비로 모든 비용을 지출한 상태이기에 잘못된 보도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만원 지출 내역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개인이 200만원을 착복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입니다.

(보도의 내용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가사가 나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부산연합회는 200만원을 한마음 준비목적으로 임원진 회의를 거쳐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산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려면 "200만원 지출 내역"이 아닌 "강지민씨의 개인통장 사용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정기사 내보내겠습니다.

- 3,400만원을 각 지역회장에게 200만원씩 주지 않으면 행사를 못하게 된다. 라는 내용에 관하여

- ①강윤례회장과 보험사 관계자 진술 확보된 점.
- ②위 금액이 연합통장이 아닌, 각 지역회장 개인통장으로 송금되었다는 점.
- ③강윤례회장이 각 지역회장의 개인통장을 알 수 없었던 점.(각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름.)
- ④현행법상 공적인 후원을 받았다면,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 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본청 김순나 행정관의 진술 확보 된 점.
- ⑥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돈을 돌려주었던 점.
- ⑦이전에 역대 사건 중 연합통장에서 잠깐 개인이 사용하고 다시 돈을 넣어놓은 사건으로 녹색어머니가 물려난 것으로 기사가 난 것을 기억합니다.

-강지민씨는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의 경찰청 산하 민간단체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취재하는 취재원으로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정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통해

13대 강윤례회장 및 이사들에게 명확한 사실 확인하는 것이 순서 임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운운하며 순수한 봉사단체의 기본을 말하면서 진실이 왜곡된 명분 없는

기사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정식 인터뷰 요청 건에 관하여~

(강지민씨가 두 번째 질문에 "비리에 대한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하여 본인도 이 사건이 "비리"라고 인정하시는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①본 기자는 분명, 이 사건의 기사가 나가기 전에 강지민씨의 입장 표명을 듣기위해 인터뷰 요청하였으나 강지민씨는 "자신이 강지민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제 와서 정식 인터뷰 요청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되며, 강지민씨는 이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분이 아니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사건의 당사자인 강윤례회장과 보험사관계자는 분명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그 진술이 같고, 경찰청 김순나 행정관의 진술도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13대 대구 류승령회장과도 통화에서 200백만원을 활동비목적으로 개인통장으로 받은 사실과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③강윤례회장과 보험사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김순나 행정관이 이 사건의 문제는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사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돈을 돌려주라고 한 점.

④순수한 봉사단체가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당시, 강윤례회장이 보험사와 한마음 대회를 추진할 때, 강윤례회장이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강지민씨등 16개지역회장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에 강지민씨는 왜 문제가 있음을 따지지 않고, 개인통장번호를 알려 주셨나요?

이 기사는 왜곡된 기사가 아닌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강지민씨가 기자에게 무슨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직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저는 13대 한마음관련 후원에 있어 명확한 목적에 맞는 후원과 지출 감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강윤례회장에게 중앙회 이사로서 명확성 요청을 하였고, 경찰청까지 찾아가 명확한 감사가 진행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원영아 회장 혼자서 말을 듣고 생리대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13대 문제점을 고려하여, 14대 생리대 사업을 명확히 이사회를 통과 시켜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지만, 찬. 반만 논하는 원영아 회장에게 명확성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산임원진과 논의 후 반대로 결정 하였습시다.

3.13대 한마음관련 후원관련 지출감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강윤례회장에게 명확성을 요청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①강윤례회장은 오히려 강지민씨에게 왜 보험사들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진부분에 대하여 애기하고 있습니다.

②또한, 본인 강지민씨는 보험사에게 강윤례회장이 총 금액 8천4백만원 외 더 받은 돈이 없냐고 질문하셨던 것으로 보험관계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③경찰청에 찾아가 명확한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에 정확한 감사를 요청했다는 것인가요?

④아니면, 김순나 행정관의 말대로 국회의원 장제원 보좌관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인가요?

⑤원영아 회장과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며, 이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1. 서상원 기자는 원영아 회장으로부터 제보가 있어 왔으며,

2018년12월27일 대전 코레일 회의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 "녹색 어머니 중앙회 이사회를

원영아 회장 없이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녹색 어머니회 이사회에 관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녹색 어머니 중앙회 회의 장소를 엿보고, 모든 이사가 여자로 구성 되어 있는 이사회에 참석한 본인에게 목적과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강제성 인터뷰를 요구하며, 거부하는 사람에게 기자라고 강제성 인터뷰 진행을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까지 신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 막으며 인터뷰 강제성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 14대 중앙회장 제명으로 이사회가 끝난 이 시점에 이런 왜곡된 기사를 썼는지

도대체 원영아 회장과 무슨 관계이며, 생리대 사업에 대해 기사를 많이 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의구심이 가서 묻습니다.

원영아 회장 및 생리대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월10일 이내로 기사를 정정 않을시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정입니다.

결론

위 결론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①첫 번째 질문은 강지민씨가 말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 강력한 유감의 표명을 하는 바이며, 본 기자는 강지민씨 및 홍현미씨 그리고 김진미씨가 13대에서 일어났던 비리에 대하여 강지민씨 말대로 왜? 경찰청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13대 회장들이 14대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기때문에 취재를 위해 간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13대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 졌다면 13대에서 제명 되어야 하는데 제명이 안 된 이유와 아직까지 강지민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장제원 국회의원보좌관과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취재원이 취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취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떳떳하면 의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취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14대 중앙회장을 제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며, 기사는 분명 취재에 의해서 나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영아 회장이 생리대를 하든 말든 본 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좋은 일을 취재하면 좋은 기사가 나가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을 하면 안 좋은 기사가 나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지민씨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기사가 나가는 것처럼 똑 같습니다.

④1월10일 이내로 기사는 정정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본인 강지민씨가 본기자의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통장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통장 사용 내역서를 은행으로부터 출력 받아 공개하시고, 의혹을 증명하면서 개인이 사용을 한 것이 없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통장으로 받은 부분은 문제가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론할 증거도 없이 본 기자에게 기사를 정정하지 않으면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신 것은 분명 협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음으로 본 기자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⑤본 기자는 강윤례회장과 보험사관계자 및 김순나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내용은 강지민씨가 서면으로 보내온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를 계속이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자와의 질의 및 답변 그대로 기사가 다시 나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법으로 판가름을 할 예정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G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상원기자 | 2019-01-31 11:45:17

OK저축은행 햇살론

직장인, 사업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
OK햇살론

oksavingsbank.com

열기

